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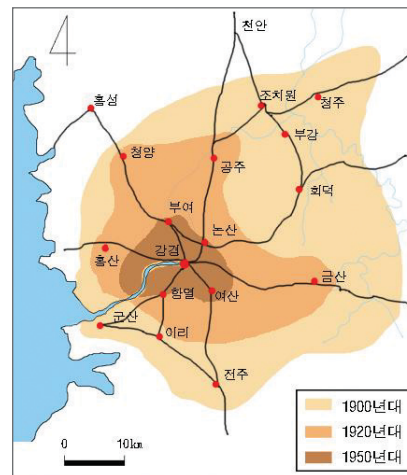
한상욱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2대 포구 3대 시장의 신화를 간직한 강경

강경은 금강 곡류부 우안에 위치하는 읍급 도시이다.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논산시에 속하며, 동쪽은 논산시 채운동, 서쪽은 부여군 세도면, 남쪽은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북쪽은 논산시 성동면과 접해있다.

강경의 역사는 금강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금강은 과거 서해안의 간만조를 이용한 내륙의 수로로서 군산, 강경, 부여, 공주를 연결하던 뱃길이었다. 그 중심에 강경이 있어서 일찍부터 금강 수운 교통의 요지 역할을 담당했다.

육상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의 금강은 백제시대에는 일본과의 중요한 교통로였고, 고려조에서는 수납된 세곡을 운반하는데 이용되었다. 조선초에는 세미를 서울로 운반하는데 이용되었고, 조선중기에는 제주에서 미역과 고구마, 좁쌀을 실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조선 중기부터는 중국의 무역선들이 비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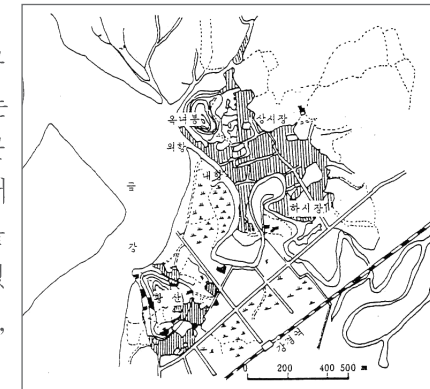


강경의 상권 변화

소금을 신고와 거래를 시작했다.

1899년 군산의 개항으로 금강의 내륙수로는 3구간으로 구분된다. 상류부는 부강 이상, 중류부는 부강-강경, 하류부는 강경-군산으로 나누어진다. 당시의 강경은 수운을 통해서 군산과 공주와 연결되고, 육로를 통해서 전주, 대전과 연결되어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의 산물을 한 곳에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이른다. 이때, 강경은 중하류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화물이 모이는 물류 집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중계하향으로서의 상업적 변형을 누리게 된다.

강경이 대시장으로 크게 부각된 것은 19세기 말에 들어서이다. 17세기 말엽에 강경천 주변 하시장에 이어 1870년에



1914년 강경지도



구한말 강경장



구한말 강경장



1920년대 강경시가지

옥녀봉 동쪽 기슭에 상시장이 설치되면서 2대 포구, 3대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조선후기 2대 포구는 원산, 강경, 3대 시장으로는 대구, 평양, 강경을 꼽고 있다. 그 당시 강경의 최대인구는 3만여명에 달했으며 상인 등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10만명에 이를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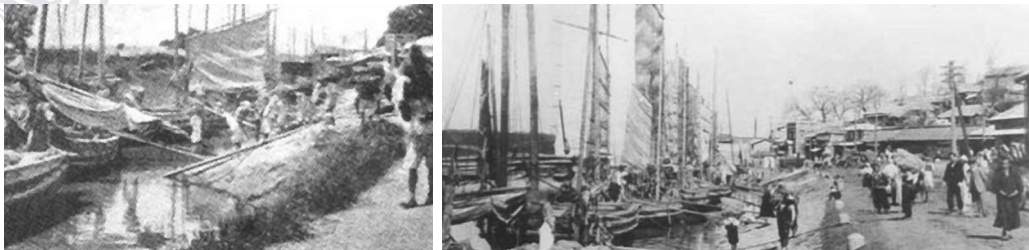
하시장은 수산물, 상시장은 곡물 등의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였으며, 그 거래규모는 당시 호남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이때 강경에서는 지방상인은 물론 국제상인들의 상행위도 이루어졌다 한다.

각종 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남은 물량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염장법과 수산가공법이 발달했으며, 새우젓 등 젓갈류는 국내 최대 공급시장으로 변성했다.

강경의 상권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22개 군에 달했으며, 1911년 강경시장의 개시일에는 점포수가 평균 900개, 출시 인원은 평균 7,000명이었으며 가장 성황을 이룰 때는 추석전과 설초로 15,000명 이상이 모여들었다. 시장액만도 1년간 200만원에 달하는 전국적인 규모였다. 거래품목은 수산물, 곡물류 이외에도 각종 식료품, 면포, 면방직, 도기, 철기류 기타 일상생활 필수품 등이었다.

현재의 강경 면적이 약 6.99km²으로 전국의 읍중에서 가장 적은 면적인

충남의 도시6_ 강 경



구한말 강경 포구

데, 당시 시장이 분포한 지역이 지금의 북옥, 염천, 서창, 태평, 중앙리 임을 감안하면, 일제 강점기에 전국의 상인들이 몰려 여관마다 초만원이었고, 북옥동 선창가 양편의 색주가가 불야성을 이루었음을 짐작케 한다.

1905년 경부선 개통, 1911년 7월 대전-강경간 개통, 1912년 강경-익산-군산간 개통, 1914년 익산-목포간 개통은 금강수운의 쇠퇴와 강경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기에 이른다.

철도는 수운에 의한 동서간 상품이동을 경부선에 의한 남북간 이동체계로 바꿔 놓았고, 강경에서 수운에 의해 내륙지방으로 운송되던 상품이 철도수송으로 바뀌면서, 강경과 부강을 중심으로 모이던 물류가 철도 교차점인 대전이나 조치원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즉 수운이 점차 쇠퇴하고 철도교통이 부각됨에 따라 대전과 같은 새로운 철도교통 도시와 군산과 같은 새로운 하항도시가 발달하여 강경은 점차 위축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1914년 논산에 1921년 대전에 각각 기존의 행정권과 은행권을 빼앗겨 강경의 위상과 상권은 더욱 위축되었다.

도시의 성장

도시의 변천을 읽어낸다는 것은 한 시점에서 도시를 정의하는 것보다 시간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읽어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성장은 항상 도시의 외곽부 즉, Edge의 변화에 그 조짐이 있다.

강경은 크게 두 개의 Edge가 있다. 그 하나는 북쪽의 제방이며, 또 하나는 철도에 의한 남쪽의 경계이다. 북쪽의 제방은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죽은 Edge이며, 남쪽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 숨쉬는 Edge이다. 이러한 강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강경은 강경천을 이용한 수운교역에 의해 옥녀봉의 동남면에 중심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시장의 활성화와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취락의 확장을 요구하게 되며,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당시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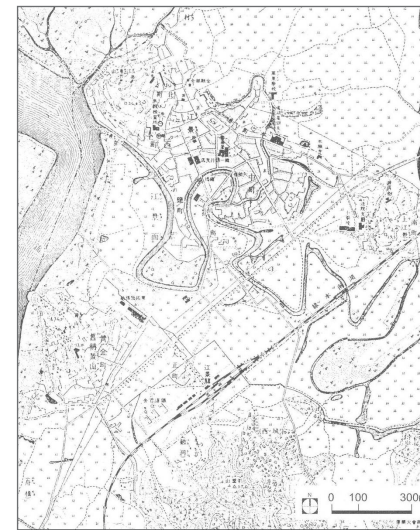
주요 교통수단이 주로 수운에 의해 이루어지고, 도로시설이 미비하여 옥녀봉 습지를 매립하기에 이른다.

19세기말에는 수운교통의 발달과 물동량의 증가로 인하여 옥녀봉 아래 외항과 강경천 하안의 내항으로 분화하여 발달하게 된다. 두 항을 연결하는 강경천변으로는 소금창고, 곡물상 등이 있어 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옥녀봉에 인접한 동쪽에는 상시장이 그 남쪽으로는 하시장이 자리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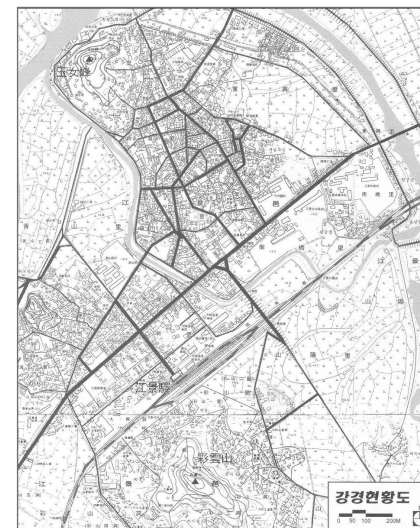
1910년 강경은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옥녀봉에서 남동방향으로 강경천을 따라 발달되어 있는 중심부이고, 두 번째는 금강 하류부 남방의 황산벌 하항이고, 세 번째는 도심중심부의 남방에 위치한 상강경으로 나뉘게 된다.

1915년경에는 도심부가 발달하면서 강경은 다시 크게 상시장과 하시장을 연결하는 도심과 황산의 취락으로 크게 나뉘게 된다. 두 시기 사이는 경작지로 이루어졌으며, 옥녀봉 동쪽 서창동, 중앙동 일대가 강경의 중심을 이룬다. 당시 내항의 연변부를 중심으로 한 서창동, 염천동 일대는 공산품을 수용하는 대형창고를 가진 일본인들이 대부분 거주하였고, 수산물만 거래하는 한국인도 다수 있었다. 홍교동과 중앙동에는 소매를 겸한 도매상의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했고 한국인도 있었으나 대부분 영세했다.

1920년경에 꾸준히 실시한 도로개수사업으로 현재와 비슷한 도로망을 구비하게 된다. 또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강경천에 대규모 제방을 쌓고 강경역 부근의 저습지를 매립하여 개발해 갔으며, 그 부근에 전기회사, 부강사, 공회당 등이 들어서서 논산으로 연결되는 도로 주변이 시가지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현재와 거의 비슷한 강경의 모습이 완비되었다.



1916년 강경



현재의 강경

충남의 도시6_ 강 경

역사적 흔적들

강경은 수운에 의해서 발달한 상업도시이자 역사도시로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쌓인 다양한 역사적 자산들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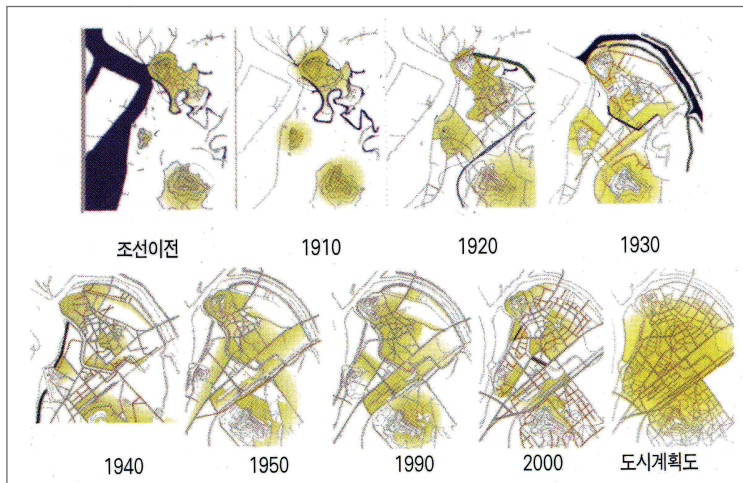
강경의 역사자원은 호남선을 중심으로 상부지역에 위치하고, 소수의 전통문화자원이 하부지역의 강경천 및 채운산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다.

강경의 역사자원 분포현황은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자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조선시대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서원 및 정자건축 등의 전통역사자원이 수려한 자원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남아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시기에 상권이 번성하면서 형성된 다수의 근대건축물들이 현존하여 강경의 시대적 특성을 담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전통역사자원은 서원건축으로 죽림서원이, 누정건축으로 팔괘정, 임이정, 덕유정이, 불교건축으로 용암사가, 사적지로는 옥녀봉 산성, 채운산성, 옥녀봉 봉수대가, 기념물로는 해조문, 옥녀봉 금석문, 황산서원비등이 분포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하에 생성된 근대건축물은 1900년대 후반부터 강경천의 호안공사가 완료되면서부터 건축되기 시작했는데, 시가지에는 상업도시 구조에 적합한 각종 상점, 금융건물 그리고 점포병용주택들이 건축되었으며, 대부분이 일본인에 의한 것이었다.

근대건축물은 공공시설로는 지방법원 강경지청, 교육시설로는 강경 공립보통학교 강당, 강경 공립상업학교 강당, 강경 화교학교가 있으며, 종교시설로는 강경 북옥감리교회, 강경 중앙천주교회가 있다. 주거시설로는 김용원 가옥, 강경상고 교장사택이 있고, 상업·금융·의료시설로는 호남병원, 한일은행 강경지점, 강경노동조합, 남일당 한약방, 토좌권업합자회사, 금성다방, 대동전기상회, 신광양화점등이 있다. 기타 사적지로는 침례교 최초선교지가 분포하고 있다.



Think locally, act globally – 작지만 강한 도시, 강경

강경은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상업도시이자 역사도시이다. 수운의 발달로 인하여 2대 포구, 3대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육상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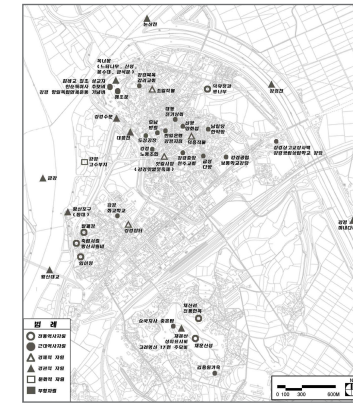
현재의 강경은 어떠한가? 강경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젓갈이다. 강경의 젓갈점포는 현재 약 100여개에 육박하며, 강경 전역에 흩어져 있다. 아직 강경은 역사도시보다는 상업도시적인 성격이 외지인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강경되살리기 운동 종합계획(1998), 충남 고도옛모습되살리기 기본계획(2001), 강경 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2004) 등 많은 계획들이 수립되어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강경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언급한 계획들의 공통되는 특징은 바로 강경의 역사성에 대한 재발견이며, 역사적 자산들을 어떻게든지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로 연결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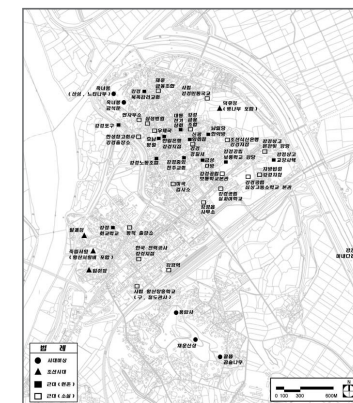
강경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국제도시역사학회에서 언급되는 주요 주제는 중심-주변-지구화, 과거와 현재이다. 국제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공통된 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지구화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이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회계층을 가르고 이는 도시공간의 분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시문제는 고스란히 국가나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는다는 점, 둘째, 도시와 건축은 점차 자본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서 움직이며, 과거와 같은 하향식(Top-down)의 도시계획이나 설계는 점차 무력화된다는 점, 셋째, 지구화라는 거시적 현상 아래 지역의 사회, 문화, 정치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미시적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점, 넷째, 현재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이슈화된 지속가능성은 지구화와 달리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상업자본과의 갈등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바로 상향식(Bottom-up)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경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강경은 젓갈산업과 역사문화자산을 부의 원천으로 삼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별 역사문화자원 분포도



시대별 역사문화자원 분포도

충남의 도시6_ 강 경



▲ 강경공립보통학교 강당



▲ 김용원 가옥(1940)



▲ 남일당 한악방(1923)



▲ 호남병원(1928,소실)



▲ 강경노동조합(1925)



▲ 한일은행 강경지점(1910)



▲ 금성다방(1940,소실)



▲ 침례교 최초선교지(1889)



▲ 북옥감리교회(1923)

둘째, 수려한 자연환경·역사문화·젓갈산업을 전략관광자원으로 하여 테마별·공간별로 지역이미지 창출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미래상을 공유하며, 함께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여형의 지역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기존의 젓갈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매력있는 상점가 조성을 통해 젓갈산업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젓갈산업은 단순판매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 제조·가공·유통·마케팅·홍보·전시에 이르기까지 젓갈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신생 상점의 외연적 확산 및 기존 상점가의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근대건축물을 비롯한 역사자원의 보전·정비·활용을 통해 강경의 정체성 및 역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근 호남병원이 소멸되고, 그 자리에 젓갈상점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느낀다. 나아가서 근대건축물의 단순 보전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근대건축물의 활용에 참여토록 하여 강경만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전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외항지구 및 침례교 최초 선교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 해석하여 강경의 역사·한국의 역사를 주제로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으로써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젓갈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고, 젓갈 판매를 통한 관광수입을 증대기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업전개 과정에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한 강경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나도승 1981, 금강수운 하항시장권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 논문집 제 17집.
- 김정동 2000,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 김선문 1986, 강경의 성쇠와 도시구조에 관한 연구, 공주사범대 교육대학원 석론.
- 서울건축학교 2000, SA 2000 Summer workshop, 강경발전.
- 충청남도 1998, 강경도시살리기운동 종합계획.
- 충청남도 2001, 충남 고도옛모습되살리기 기본계획.
- 논산시 2004, 강경읍 육성사업 제안서.
- 논산시 2004, 강경 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